

## 국내 최대 IT쇼 한국전자전(KES 2011)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및 전자산업 관련 전시회인 '한국전자전(KES, Korea Electronic Show) 2011'이 지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나흘간 펼쳐졌다. 올해로 4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스마트해지자(Be smArt)'로 지식경제부와 경기도 주최 및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주관으로 열렸다.

취재/박지연 기자

올해 전시회 역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기본 축으로 하여 TV, 가전, 셋톱박스, 소프트웨어, 솔루션, 콘텐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800여 곳 이상의 국내외 IT 기업이 참가해 비즈니스 미팅 및 체험공간을 마련했다. 아울러 미래에 주목받을 분야로 꼽히는 그린IT나 3D와 관련한 기술 동향, 제품 전시도 만나볼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지경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코리아 2011' 행사와도 맞물려 함께 열려 더욱 규모가 커진 것이 특징. 스마트코리아 행사는 스마트 혁명의 미래를 산업 관점에서, 그리고 아시아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첫날 '아시아 IT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개막 포럼 '크리에이티브 퓨처스 포럼(Creatice Futures Forum)'에는 삼성전자 윤부근 사장과 아키히사 후지누마 노무라 종합연구소 회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이번 전자전에서 관람객들의 관심을 많이 받은 곳은 단연 삼성과 LG전자 부스였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와 3차원(3D) 등 주력 기술을 두고 양보 없는 자존심 대결을 펼쳤다. 나란히 대형 전시부스를 마련한 양사는 TV와 스마트폰, 스마트가전 등 주력제품을 대거 전시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를, LG전자는 '3D'를 주력으로 삼는 모습이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TV와 스마트 가전, 스마트폰 등을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전시장 중앙에 46인치 대형 디

스플레이 48대와 55인치, 46인치 스마트TV 16대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 모뉴먼트'를 통해 스마트 기기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스마트 라이프를 형상화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고화질 2030만 미러리스 카메라 NX200과 180도 회전하는 3인치 플립아웃 터치스크린을 적용한 미러팝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갤럭시 S2 LTE와 갤럭시 S2 HD 등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단말기도 공개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붙들었다.

LG전자는 '3D가 대세, 스마트는 기본'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쳤다. 전시장 입구에 370인치 초대형 3D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을 마련해 관심을 집중시킨 LG전자는 관람객들을 위해 국내 단일 전시회 기준 최대 규모인 3D 안경 2만개를 준비하며 적극적으로 '시네마 3D' 알리기에 나섰다. 아울러 옵티머스 3D 스마트폰으로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다른 기기에 공유하는 등의 체험 기회도 제공했다. 또한 옵티머스LTE, 옵티머스EX, 옵티머스Q2 등을 하반기 주력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라인업을 소개하며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전시회에는 협회 회원사에서도 다수의 업체들이 참가하여 최신 제품 및 기술을 선보였다.

프로옵틱스는 3D 카메라용 줌렌즈 및 3D DMD 프로젝터와 3D 복강경 카메라를 새롭게 선보였다. 3D

DMD 프로젝터는 1개의 투사렌즈와 2개의 DMD 패널을 사용하는 풀 HDTV급으로서 기존의 2대 방식의 단점을 해소하여 1대의 프로젝터만으로도 고성능의 입체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 특히 3D 복강경 카메라 역시 1개의 렌즈를 사용하여 성능, 크기, 제어의 간편성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이 제품에는 1개의 렌즈에서 동분할 방식을 이용하여 입체영상을 획득하는 프로옵틱스만의 독자기술로 개발된 CMOS 이미지 센서를 장착했다.

캐리마에서는 3D 프린터인 'Master' 를 소개했다.



▶프로옵틱스 정진호 사장이 입체안경을 쓰고 3D 입체 복강경 카메라를 설명하고 있다.



▶풀HD급 3D렌즈가 장착되어 2대가 아닌 1대의 방송용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옵틱스 제품

Master는 광조형적층방식을 이용한 3D 쾌속조형기로, 특수 광경화 수지를 시트 위에 자동 적층시켜 컴퓨터에 입력된 영상 데이터를 신속하게 원하는 실물모형으로 제작한다. 소모품인 특수 수지는 500g 용량으로 일반 프린터의 카트리지와 같은 방식으로 쉽게 교환가능하다.

캐리마 관계자는 “최근 치과등 의료기관에서의 문의와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며 “의료기기 모형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시제품 모형도 제작 가능하기 때문에 디자인, 건축 분야 등 활용범위가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홍보 모델이 12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열린 KES 2011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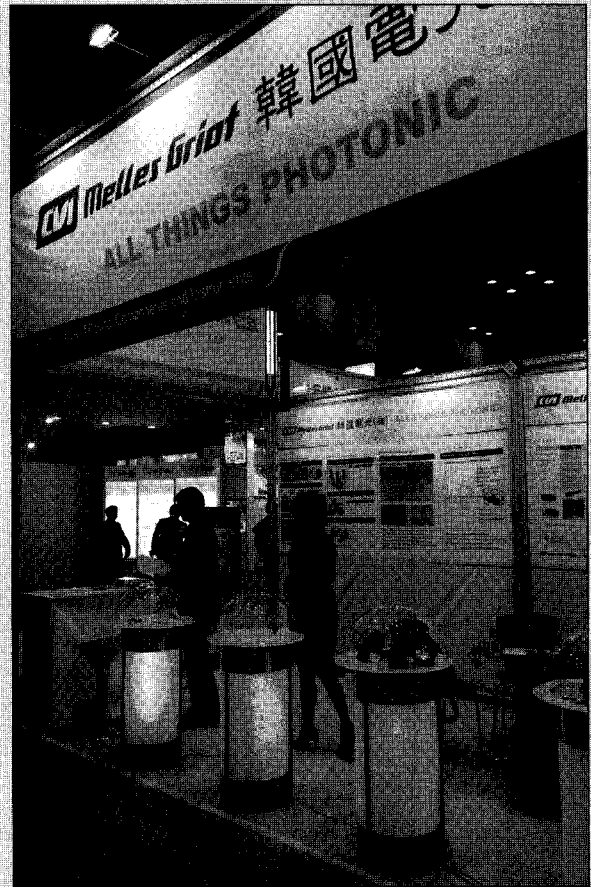
▶ LG전자 홍보 모델이 LG전자 3D 제품들을 시연하고 있다.



# 국내 전시회 리뷰 I



▶캐리마에서는 3D 프린터인 'Master'를 선보였다.



▶한국전광 부스 전경.



▶이오테크닉스 직원이 레이저 마킹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남일광학기의 김일남 사장이 제품 소개를 하고 있다.